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

**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

2023 BusanMoCA Cinemedia

**Climate of Cinema:
Isle, the Planet
and Postcontact Zone**

















목차

- | | |
|----|----------------------------------------------------------------------------------------------------|
| 14 | 인사의 말
Foreword |
| 16 | 후(候), 기후, 영화의 기후, 역사의 기후
Ecology of Practices: Climate, Climate of cinema, Climate of history |
| 46 | 샹탈 아커만, '(포스트)콘택트 존'의 가장자리에서
Chantal Akerman: Exploring the Peripheries of the Postcontact Zone |
| 50 | 시네미디어 존
Cinemedia Zone |
| 58 | 극장행성
Cinema Planet |
| 68 | 시네미디어 라운지
Cinemedia Lounge |

Contents

84	극장을 숙 Cinema Eulsuk
92	느티나무 아래 Under the Zelkova
102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128	저항하는 새로운 세계 Defiant New Worlds
140	리뷰 Review
168	전시연계 프로그램 Exhibition Linked Program

인사의 말

강승완
부산현대미술관 관장

사무실 창밖으로 읊숙도 생태공원, 낙동강, 하늘이 한눈에 파노라마 뷰로 들어옵니다. 계속된 전 세계적 이상 기온 현상으로 종종 짙은 해무나 세찬 빗줄기로 바뀌는 읊숙도의 풍경은 탁한 색으로 넘실대는 강물과 짙은 녹음의 떨고 있는 나무들이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대기와 만날 때, 마치 정지된 시간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초현실적이며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 순간, 부산현대미술관 자체가 “영화의 기후”가 됩니다.

낙동강 하류 읊숙도에 입지한 부산현대미술관은 2018년 개관해 올해로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천연기념물 179호 생태공원이라는 입지는 부산현대미술관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저는 올 한해 미술관의 모든 프로그램을 환경, 생태, 기후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가운데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_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은 부산현대미술관이 올해 시작하는 격년제 프로젝트 “부산모카 시네미디어”의 첫 번째 전시입니다.

4개월 동안 78명의 영화감독 100여 편의 작품이 상영되는 전시 규모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시는 단순히 생태 문제에 대한 영화적 접근이 아니라, 무빙 이미지를 중심으로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생태학적, 인류학적, 지정학적, 정치·경제학적 관점들이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들을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쭉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디페시 차크라바티가『역사의 기후』에서 제기한 자연사와 인류사 사이의 인본적인 질문들을 영화 매체로 대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매체를 통해 시대와 영화의 역사를 재정의하는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_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은 인류세 이후 새로운 전환의 테제를 모색합니다. 전시는 또한 엔데믹 시대에 자연, 인간, 동식물, 기술에 대한 기존과 다른 정의와 가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콘택트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 읊숙도이고, 미술관입니다. 읊숙도는, 미술관은, 극장을 숙, 극장행성, 시네미디어 존, 시네미디어 라운지의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영되는 무빙 이미지를 통해 고립을 벗어나 역사, 미래와 소통하고 세계와 관계 맺기를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여행에 참여해 주신 김소영 프로그램 디렉터와 영화감독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의 “부산모카 시네미디어”的 유의미한 여정에 계속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Foreword

Kang Seungwan
Director,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Outside the office window, Eulsukdo Ecological Park, the Nakdong River, and the sky come into view as a panoramic scene. Due to increasingly abnormal global weather patterns, Eulsukdo is often shrouded in thick sea fog or heavy rains. When the turbulent, murky river waters and the lush green trees encounter the damp air, it creates a surreal, dream-like atmosphere, as if time has come to a standstill. In that moment,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becomes a “cinematic climate” itself.

Busan MoCA, located on Eulsukdo, an island at the base of the Nakdonggang River, is celebrating its fifth anniversary this year. The identity of Busan MoCA is closely tied to the Eulsukdo Ecological Park,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 No. 179. To honor this connection, all of our programs for 2023 focus on environmental issues, ecosystems, and climate change. The inaugural exhibition *Busan MoCA Cinemedia: Climate of Cinema – Isle, the Planet and Postcontact Zone* is part of a biennial project we launched this year.

The scale of the exhibition is remarkable, featuring over 100 films by 78 filmmakers screened over a four-month period making it not only unusual in Korea but also internationally. The exhibition takes a cinematic approach to ecological issues, meticulously and seriously showcases the diverse intersections of ecological, anthropological, geopolitical, and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s — both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 through the medium of moving images. It embodi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histories of nature and humankind, akin to those posed by Dipesh Chakrabarty in *The Climate of History in a Planetary Age*, expressed through film.

By redefining our understanding of current times and the history of cinema through these films, the exhibition explores new paradigms for the post-Anthropocene age. It envisions a new “contact zone” in the post-COVID-19 world where definitions and values about nature, humans, flora and fauna, and technologies coexist peacefully alongside existing ones — a vision akin to that of Eulsukdo or Busan MoCA. Through the moving images screened in various spaces, such as Cinema Eulsuk, Cinemedia Lounge, Cinemedia Zone, and Cinema Planet, Busan MoCA — our island home — seeks to move beyond isolation and forge meaningful connections with history, the future, and the world.

I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Program Director Soyoung Kim, who thoughtfully curated this inaugural journey, and to all the filmmakers whose works were featured. I invite you to keep a keen interest in the future meaningful journeys that Busan MoCA Cinemedia will embark upon.

리뷰

CohabitUS:
느린 항해를
향하여

Review

CohabitUS:
Towards
Slow Seining

큐 리

뉴욕 시립대 존 제이 컬리지 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철학과 젠더에 관한 다양한 사회 인문학 분야의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Kyoo Lee

Kyoo Lee is a professor at CUNY(City University of New York, John Jay College, and Graduate Center), and is actively involved in research and authorship in various fields of social humanities such as philosophy and gender.

Current Bio: <http://www.kyoollee.net/>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섬〉(2009)

천천히, 이제는 빨리.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코로나19 팬데믹은 갑작스러웠고 지진과도 같은 큰 변화를 불러왔다. 순식간에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이름으로 함께 서 있으나 멀찍이 떨어지는 패러독스를 행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직 보이는 건 무엇일까?

코로나19로 야기된 시대적인 사건, 잠시 멈춤은 “사물 자체”에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머릿속에 있는 내용 또는 신념을 의식적으로 중단하는 현상학적 “에포케(epochē, 중지)”처럼 보였고 그렇게 느껴졌다. 이 대대적인 멈춤은 모든 이들의 삶을 대기 상태로 두었으며, 지금까지 과도하게 처리하거나 남용해 왔던 세계의 표면을 쪼개어 열어버렸다. “모든 것 아래에,” 우리 현대인들에 의해 종종 무시되거나, 밟 빠르고 분노에 찬 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계속 존재해 왔던, (무)질서와 (초)현실의 더 큰 세계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우리 앞에 중요한 시간이 놓여 있다. 새롭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어느 때보다 도드라지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는 이 세계의 깊은 결함과 흐름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 다시, 이상하리 만치 재채기를 유발하는 지구는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당신이 먹는 것이나 당신이 이 상황을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무디 가게와 쇼핑몰의 아래, 그 너머, 주변을 살펴보라고. 안전한 장소여서 시련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곳. 이 행성에서 불안하고 격동의 시간을 보내는, 어떤 고고학적 증거보다 더 오래되고 그 어떤 역사 이야기나 과학적 데이터보다 더 복잡한 생태계를 외면하지 말라고.

There is an island between people.
Here's wanting to go to that island.
CHONG Hyon-Jong, “Island” (2009)

Slow down, now, quickly.

2020 Pandemic cogitation. The COVID-19 pandemic outbreak. The suspension was sudden, and the shift, seismic. Quickly, everyone started performing this paradox, “social distancing,” standing together by standing apart. What became viable? What remained visible?

That epochal pause began to look and feel like a phenomenological “epochē” (ἐποχή, cessation): a conscious attempt at suspending mental contents or beliefs for clearer and more direct access “to things themselves.” That epochal comma in the air that put everyone’s life in a holding pattern split open the veneer of a world we have been overprocessing all along, almost abusing, to the point of trashing it: “underneath it all,” another vaster world of totalized and fossilized (dis)orders and (sur)realities that had been there all along, often ignored or else monetized by the fast and furious among us modern folks, started surfacing.

Again, big time this time. All such infrastructural problems that were hardly new but only highlighted more than ever, pointed us towards some of the deeper flaws and flows of the world. Again, this epochally sneezy Earth said loud and clear: look again not just @ what feeds you and keeps you going but beneath beyond and around these smoothie stations and shopping sites and supposedly safe spaces so slickly sheltered. Do not look away from all these troubled turbulent ecosystems on this planetary platform that are older than any archaeological evidence, ever more complex than any historical narratives or scientific data.

이것이 금세기 첫 번째 유행병의 표층에서 나온 바이러스의 신호였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식적 기재와 의식적인 대응이 요청되었다. 위기에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보려 하든, 보려 하지 않든, 치솟는 해수면처럼 빠르게 짐들려다 다시 한번 깨어난다. 거대한 충격, 두려움, 공포는 결국 우리의 주의를 각자의 손에 들려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녹고 있는 시간의 조용하고 강력한 현실로부터 외면하게 만든다. 기억과 망각의 해일,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문제, 플라톤의 레테(망각)의 강이 바로 여기 cohabitUS에 있다. 이러한 물질적 흔적이 빅데이터나 메타버스라는 찻잔의 소용돌이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분명, 종식과는 아직 거리가 먼,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겪는 우리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 수박 걸 훑기 식이 아닌,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제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용감하고 새로운 지금의 뉴 노멀 시대에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양 들어와 특특 털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팬데믹의 기세는 수그러들었지만 우리는 비접촉 방식을 고수하며, 팬데믹 이전의 삶에는 작별을 고했다. 공항의 안마 의자도 바빠졌지만 영화관은 여전히 텅 빈 채로 남아있다. 적막하게.

우리가 자신의 섬에 혼자 사는 아이랜더(iLanders)가 된걸까? 섬사람(islanders)에게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생태계 비전의 회복력과 지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존을 하기 위해 대안적 패러다임과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이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2023 영화의 기후. 이제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_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이하 《영화의 기후》)으로 눈을 돌려보자. 부산현대미술관에서 기후 변화 등등에 관한 “에코” 영화가 상영된다. 요즘 이런 영화가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도,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영화일 수도 있는, 여기야 말로 완전히 새로운 가상 여행을 시작할 바로 그곳이다.

Such were the viral signals from the epidermis of the first epidemic of this century that in turn requires a new epistemic register and mindful response on our part. Facing crisis on crisis, like the rising sea level we try (not) to see, we are awakened once again to fall asleep, slow-quickly. A titanic shock, dread, and fear ends up distracting us from the quieter and stronger realities of time melting in our portable Iced Caffè Americano. This tidal wave of remembering and forgetting, this issue and tissue of the visible unseen, part of the Platonic River of lethe (λήθη, oblivion), is here with us cohabitUS, the material traces of which will outlive any big data or storms in a metaversal teacup.

Quite obviously,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 crisis which is far from over, which in fact might have just begun, we would need to figure out ASAP cosmically, not just cosmetically, viable ways to click back into place, not just go back – where? Quite simply, we cannot, although we in deed can, just log on and tap on to move on as if nothing had happened in this now brave new world of the “new normal.” As the pandemic wanes and we wave goodbye at the “prepandemic” past, contactless cards too are here to stay, and now even the massage chairs at airports are getting busy, while movie theaters remain empty, desolatingly empty.

Have we all just become little iLanders? What counter-lessons could we learn from islanders, the resiliency of their ecological vision and wisdom? We continue to search for alternative paradigms and “platforms” for socially meaningful coexistence. But where? And how?

Climate of Cinema 2023. Now, turn to this, *Climate of Cinema: Isle, The Planet and Postcontact Zone 2023* at MoCA Busan, where you can see some “eco” cinema about climate change and so on, perhaps too many these days though for anyone’s lifetime, yet that is where and how you would start a whole new virtual journey.

사실, 여름 한 철을 이 곳에서 보낼 수도 있다. 한가한 시간에 말이다. 전 세계 78명의 위대한 감독이 제작한 100여 편의 훌륭한 영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그 중 상탈 아커만(Chantal Akerman) 감독의 컬트 클래식, 영화 <잔느 딜망>(1975)이 있다. 중년 과부의 일상, 단순한 그녀의 세상, 그녀의 시공간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스타카토, 그곳에서 잠자리를 정돈하거나,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201분 길이의 영화다. 『영화의 기후』프로그램 디렉터인 김소영의 초학제적 지식, 비판 이론적 관점, 범주를 넘나드는 통찰력, 큐레이팅 스킬은 그야말로 놀랍다. 모든 것이 생태학, 인류학, 정치경제학, 젠더 이론, 영화의 역사와 역동적으로, 놀랍도록 다양하게 연결되고,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_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의 모든 작품들이 한데 모여 부산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대안적인 에코 시네마스케이프를 위한 새로운 군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어난다. 미묘하게 연출된 일련의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느린 항해처럼, 항상 느리고 갑자기 보고 있는 반대편이 흑하고 모습을 들어낸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불규칙한 장면과 소리가 산발적으로 공간에 울린다. 관람객이 반몰입형 암실인 건물의 2층으로 입장하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 점차 소리의 일원이 된다. 그렇다면, 바다는 어떨까? 궁금하지 않은가?

스기모토 히로시(Sugimoto Hiroshi)의 텅 빈 극장, 진심으로 획기적으로 말 그대로 텅 빈 무대와 스크린, 그리고 그 너머 지평선과 비슷한 모습을 상상해 보라. 지금은 상상할 필요도 없거나 혹은 역으로 상상해야만 하는 현실 버전 지평선. 앞서 괄호 안에 언급했던 “중지”를 기억해 보자. 그리고 텅 빈 극장과 지구의 물 위기를 배경으로, 토끼와 질주하는 고대 그리스의 거북이, 의아할 정도로 느리지만 경주에서는 늘 이기는 그 거북이의 체온처럼 솟아오르는 바다를 상상해 보라. 유리 가가린의 우주 여행과 유라시안 고대 튀르크 신화인 중력을 잊은 최초의 샤먼, ‘코르쿠트’ 사이를 천천히 항해하는 사오닷 이스마일로바(Saodat ISMAILOVA) 감독의 2채널 비디오 설치 작품 <두 개의 지평선들>(Two Horizons, 2017)은 물론, 켜켜이 쌓인 비밀을 온 힘을 다해 침묵으로 지키는 <사십일 동안의 침묵>(40 Days of Silence, 2014)도 『영화의 기후』에서 만날 수 있다. 실로 드문 기회다.

In fact, you could spend the whole summer there. At your leisure. You can watch over 100 excellent films by 78 great filmmakers from across the globe including a cult classic, *Jeanne Dielman, 23 quai du Commerce, 1080 Bruxelles* (1975) by Chantal Akerman, a 201 minute-long a window into the daily life of a middle-aged widow, the widowed simplicity of her world, the gentle staccato of her spacetime, in which she makes the bed and sometimes beds a stranger in order to be able to make the bed. The transdisciplinary erudition, critical theoretical perspectives, cross-categorical insights, and curatorial skills with which Soyoung Kim, Program Director, put them all together is stunning. All dynamically related to ecology, anthropology, political economy, gender theory, and the history of film, remarkably in one way or another, all the pieces hosted together contemporarily here create a fresh new archipelago not only for planetary Busan but an alternative ecocinemascape in itself.

On this site, seeing becomes not only believing but a happening, a series of subtly choreographed happenings; and there, counter-seeing unfolds nudgingly in the form of *slow seeing*, each time slow and swervy. Subtly syncopated sights and sounds reverberate sporadically throughout the space,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now a semi-immersive darkroom, where the visitors, once checked in, get sucked in, themselves gradually becoming choral members. So then what would it be like to *see* things? I hear you wonder.

Imagine a sort of seescape, similar to the one (happening) in Hiroshi Sugimoto's empty theater, his seriously epochally literally empty stages and screens and their oceanic horizons, real-life versions of which we do not have to imagine these days or else have to counter-imagine. Remember those brackets, “epochs,” recalled earlier. Then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empty movie theaters and global water crisis, visualize a sea that is rising like the body temperature of the ancient Greek tortoise racing with the hare, the mysterious meta-slug that will always win. Also go slow-sea Qorqut, the mythical Turkic Shaman who had just lost gravity, flying with Yuri Gagarinin, in space travel, as retrofuturally juxtaposed in *Two Horizons* (2017) by Saodat ISMAILOVA, whose horizontally layered and dynamically muted sound of *40 Days of Silence* (2014) too, on the program, is a real rare treat.



〈이어도〉 *Ieo Island*
김기영 KIM Ki-young, 1977

사실, 이곳에서는 해운대의 재난 스릴러 영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대신 김기영 감독의 〈이어도〉(Ieo Island, 1977)와 같은 고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오싹한 초현실적 영화를 발견해 기쁠 수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제주도 아래에 위치한 섬으로, 허구이기도하면서 실제(소코트라 암초)인 장소이다. 김기영 감독은 동음이의어, 말장난을 사용("이어도"의 "이"는 다르다-달리하다-기이하다-기묘하다는 의미이며 "어"는 물고기를 뜻함)하였는데, 이는 최근 리마스터링한 아방가르드 클래식 영화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점이다. 이 영화가 전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세련된 비평 또한 꽤나 분명하게 시대를 앞선다. 그러한 "다른 물고기"가 왜, 어떻게 다시 물 위로 떠오르는지 보는 것은 이 영화가 전하는 한층 더 풍부하고 깊은 레트로퓨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 물고기가 왜, 어떻게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_영화의 기후: 섬, 행성, 포스트콘택트존》에서 포스트 팬데믹 프로젝트로 재등장하는지 보는 것은 이번 전시의 이면에 있는 미술관적 비전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 무리의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 무리와 함께 헤엄치는, 같으면서도 다른 동굴의 우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절제와 느림의 메타-시네마틱 미디어스케이프, 영화의 기후는 '시네미디어 라운지'라는 널찍한 리셉션 공간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시네미디어 존', '극장행성', '극장을 숙' 총 네 개의 지점에서 창출되는 "영화의 기후"라는 개념에 대해 고찰한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영화의 별이자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부산 끝자락에 위치한 을숙도 생태공원의 일부, 특별하게 설계된 보물, 부산현대미술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영화 전시에는 실험영화, 예술영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주를 이룬다. 이번 전시는 왜 우리에게 공감각적으로 재구성하여 활력을 불어넣는 이러한 전시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영화 예술이 A.I. 시대 — 이번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겠지만 AI는 만티아 디아와라 감독의 〈AI: 아프리카 인텔리전스〉(2023)를 의미하기도 한다 — 에 점진적으로 재창조되는 예술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True, you may not find a disaster thriller on Haeundae there. Instead, you might be otherwise thrilled to spot a quieter and in some sense more scarily surrealized alternative such as Ieo Island (이어도 異魚島 1977, also transcribed as *Ieo Island*) by Kim Ki-young. "Ieo" being a half-fictional and half-real (Socotra Rock) place below Jeju Island, "The Hawaii of Korea," the director's homophonic transinographic pun on the island, "E異," the other-different-abnormal-queer, and "Uh魚" fish, is another unmissable spin in this recently remastered avant-garde classic whose "environmental awareness" and civilizational critique, too, is quite clearly ahead of its time. To see why and how such an "other fish" resurfaces is to understand the richer and deeper retrofutural significance of this film, and to see why and how it reemerges there in MoCA Busan Climate of Cinema 2023 as a postpandemic project is to understand the (post)museological vision behind the whole exhibition.

Enter this other allegory of the cave, heterotopic and polyphonic, with that other school of fish swimming with some other fish. A meta-cinematic mediascape of and for the slow on a subtly low key, *Climate of Cinema* contemplates on the notion of "climate of cinema," itself created through four spots scattered around a roomy reception area, "Cinemedia Lounge," the other three spots in the periphery being "Cinemedia Zone," "Cinema Planet," and "Cinema Eulsuk." A cross-categorical cinematic constellation on a micro-planetary scale, the site-specific show in this uniquely designed and treasured MoCA, part of the eco-park on The Isle of Eulsuk at the other end of touristy Busan, "the Napoli of Korea," mostly consists of experimental, arthouse and independent documentary films. It shows why we need this (kind of) synaesthetically reimagined and revitalized museum and how cinematic art can become integral part of such progressively reimagined art practice today and tomorrow in the age of AI, which, we see from the program, can also mean AI: African Intelligence (2023, Manthia Diawara, at Cinema Eulsuk).



〈AI: 아프리카 인텔리전스〉 *AI: African Intelligence*
만티아 디아와라 Manthia DIAWARA, 2022

그렇다면 애초에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까? 우리 모두는 동시대에 뒤얽혀 있는 현실을 통해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느리게 항해하듯이, 영화와 철학과 시적인 태도를 가지고 거꾸로 바라보아야 한다.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유하는 영화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서 있고 또 서있지 않은 섬 사이의 “미지의 수역을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와 같다. 끊임없이 언박싱되는 을숙도 한복판의 커다란 블랙 박스는 같이 살며 장르를 넘나들며 협력하는 형태로 생태계가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생물학이 기술에 도전하는, 혹은 이데올로기가 생태계에 맞서고 기술이 생물학에 도전하는 곳이다. 전형적인 변형과 반(反)보관 기록, 독립적이고 소외된, 디아스포라적 시선, 목소리, 흔적을 큐레이션하고 수용하여 해제모니적으로 자기 망각을 거듭하는 영화의 역사와 기술적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탈식민, 다국적, 군사, 기술 자본주의, 젠더, 인종, 민족적 생태 학살과 뛸 수 없는 사회-생물-정치적 폭력의 글로벌 역사와 대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랜스:아시아 영상문화연구소 중앙아시아 컬렉션」은 연구소의 중앙 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영화를 상영한다. 유랑민의 생존, 공생, 한번 보았던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된 과거로부터의 생존이라는 트랜스-아카이브 렌즈를 통해 디아스포라와 토착민이, 그리고 급진적인 것과 박멸된 것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볼 수 있다. 송 라브렌티(Son Lavrenti)의 자기 성찰적 성격의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외부인들이며, 회복력 강한 그들의 인간성과 주관성은 우리 자신의 멀지만 친밀한 외면을 뜻한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김소영 감독의 주제죽을 발견할 것이다. 김소영 감독의 2018년 작품 〈SF drome: 주제죽〉에서 스탈린에 의해 추방된 사회주의 여성 혁명가 주제죽(1901-1953)은 코스모드롬 주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재활용 자재로 곳곳에 벽을 세운 영화관에서 우리는 CohabitUS를 만난다. 포스트 플라토닉 미디어 동굴처럼 구성된 어두운 공간은 이동 중인 영혼을 위한 곳이다. 극장을 속에서 상영하는 차이밍량(TSAI Ming-liang) 감독의 〈행자〉(行者, Walker, 2012)에서 느리게 이동하는 승려와 다르지 않다. 먼저 사방을 더듬어 시네미디어 존으로 들어가면, 계몽주의 약점에 대한 어둡고 레트로퓨처 풍의 명상을 하게 되는 에밀리아 스카눌리터 감독의 〈어둠의 깊은 지대〉(Aphotic Zone, 2022)를 만나게 된다.

So why this project, to begin with? We, by which I mean everybody, need to slow down and look, and think, through our contemporarily entangled realities. And how? By slow-seing, counter-seeing cinephilopoetically; this critically and creatively contemplative cinematic collectivity is a ship we need for “navigating the uncharted water,” as we say, between the islands that we are and we are not. The big black box in the middle of the isle of Eulsuk that constantly unboxes itself is where ecology confronts ideology, and biology challenges technology, and vice versa in a mode of constant cohabitation and genre-crossing collaboration: questioning the hegemonically self-forgetting history of film and its technical correlates through a paradigmatically transformative, counter-archival documentation, curation and reception of independent, marginalized, and diasporic gazes, voices, and traces can confront the ongoing glokal history of social, bio-political violence that is inseparable from ongoing episodes of postcolonial, transnational, military, techno-capitalist, gendered, ethnoracial ecocide, among other countless worldly and otherworldly atrocities.

In the “Trans:Asia Screen Culture Institute” part of the program, for instance, where the Institute’s Central Asia and South Asian Collection is showcased, we see how the diasporic and the indigenous come together, and the radical and the eradicated, through a trans-archival lens of exilic survival or covival, also a kind of contemporary survival of the past in the imagination of a future once seen. People in Son Lavrenti’s soul-searchingly paced documentaries are outsiders *in ourselves*, and their resilient humanity and subjectivity, our own distantly intimate exteriority. You see in yourself a virtual trace of Soyoung Kim’s JU Sejuk (1901-53) from *SFdrome* (2018), a forgotten socialist feminist exiled by Stalin who found herself in a vicinity of Cosmodrome.

We meet them, us, cohbitUS, in a breathable cinema, whose softwalls are also built out of recycled materials. Composed like a post-Platonic media-cave, this postpandemic umbrascape is for the soul in transit, not unlike the slow-moving monk on a spiritual treadmill in TSAI Ming-liang’s *Walker* (2012) at Cinema Eulsuk. Almost groping your way, first, into Cinemedia Zone, you are entering into the world of Emilia Škarnulytė’s *Aphotic Zone* (2022), a dark, retrofutural meditation on the underbelly of the Enlightenment.

전시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새롭게 받아들일 요소들이 있다는 점에서 또한 주목할 만하다. 또 하나의 인공지능인 생활환경 지능(Ambient Intelligence)이 그것이다. 영화관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람객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보다 무언가에 이끌려 때로는 다른 관람객과 함께 멈춰 선다. 관람객들은 한 때 미술관, 대화하는 공간, 개인 상영실, 회의실, 세미나실, 기록보관소, 도서관, 학교, 사찰, 국경지대, 등이었던 하이브리드 원더랜드로 초대된다. 2023년 나를 위한 진정한 무한의 방, 정교하게 다양한 요소를 구현한 포스트콘택트존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접촉이 비현실적이지만 넓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아일랜더(iLander)가 아닌 섬사람(islanders)이 될 수 있다.

『부산모카 시네미디어』 2023, 2025, 2027… 맹렬하게 빠른 전개에 대한 반응으로 느리고 거리를 둔, 이 고요하고도 스마트한 전시는 강승완 부산현대미술관 관장과 프로그램 디렉터인 김소영 감독의 탁월하고도 자유로운 협업의 산물이다. 강승완 관장과 김소영 프로그램 디렉터의 만남, 성공적인 협력으로 이러한 마법이 탄생했다. 2023년 “영화의 기후”를 탄생시킨 『부산모카 시네미디어』는 2025년 다시 펼쳐질 예정이다. 다른 많은 기관과 함께 “포스트-뮤지엄”이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는 실존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에, 이와 상반되게 전시관에서 영화 상영 장소를 혹은 그 반대로 공간을 변혁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필요하고도 유망한 작업이다.

Also noteworthy in this regard are those relatively new elements of visitor ecology in the museum space. Another AI perhaps: Ambient Intelligence, so to speak. The navigable cinemascapes turns every visitor into a peripatetic thinker as they wander through and lounge with the pieces they would pause over with, occasionally, a few other fellow wanderers and wonderers, all of whom are invited to this hybrid wonderland that is at once a museum, a chat room, a private screening room, a meeting room, a seminar room, an archive, a library, a school, a temple, borderlands, and so on, truly an unbordered room of one's own 2023, an exquisitely polycentric embodiment of the “Postcontact” zone where contact, thus multi-mediated, remains virtual yet extensively real. Again, we (can all) become islanders, not just islanders.

BusanMoCA Cinemedia 2023, 2025, 2027… Slow and spaced as a contrapuntal response to fast and furious, this serenely smart show offered so fantastically, and so freely, is the brainchild of an exemplary co-directorial collaboration between Seungwan Kang, Museum Director, and Soyoung Kim, Program Director. Kang met Kim, and this magic emerged through that brilliant merge. The biannual exhibition, *BusanMoCA Cinemedia*, under the umbrella of which the *Climate of Cinema* 2023 came into being, is expected to unfold again in 2025. In the era when museums, “post-museums,” along with many other institutions face identity crisis and existential need to go outside its comfort zone, a reciprocally transformative remolding of a cinezone in a museum and vice versa is a task that becomes both necessary and promising—indexically futural.